

스티븐 미란 보고서 주요 내용(1)

1. 달러화 강세와 미국 경제의 문제점

: 미란은 지속적인 달러화 강세가 미국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공장 폐쇄와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미국 중서부의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2. 트리핀의 딜레마

: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국제 거래를 원활하게 하지만, 미국은 그로 인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미란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3. 관세를 통한 무역 재편

: 미란은 미국이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교역 대상국에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4. 안보와 경제의 연계

: 미란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강달러와 무역적자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여 동맹국들이 무역에서 더 공정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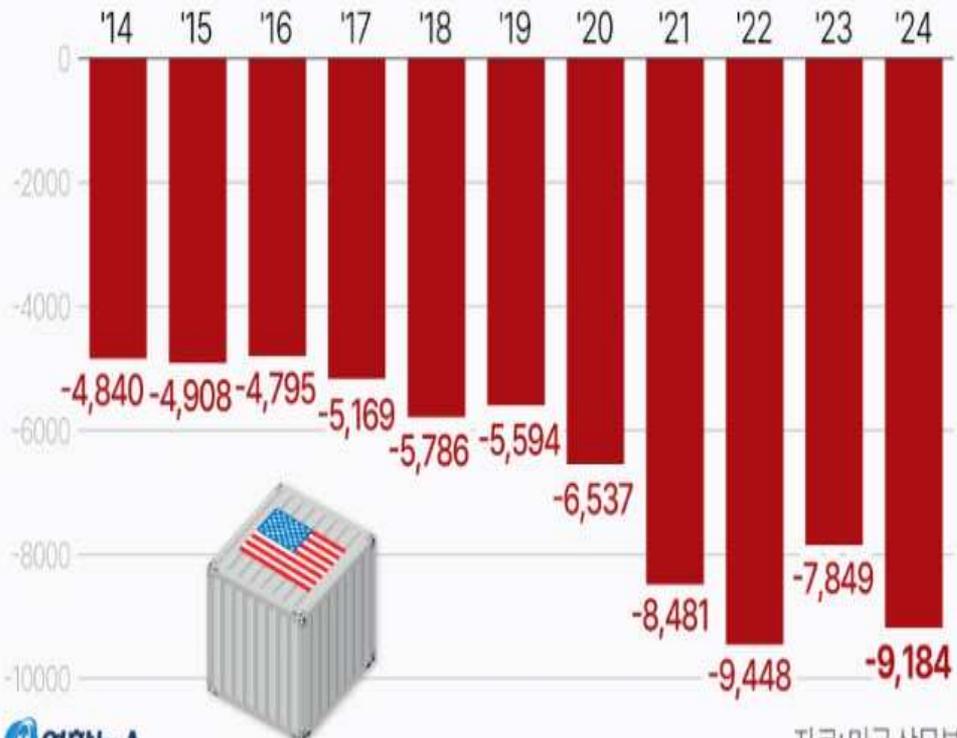
5. 환율 정책과 '마라라고 합의'

: 미란은 관세 부과 이후 달러화 강세를 예상하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마라라고 합의'와 같은 다자간 통화 협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1985년 '플라자 합의'를 모델로 한 것으로, 달러 가치를 조정하여 무역 파트너들과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의 무역적자 지속, 중국 비중은 25%(2024년)

미국 무역적자 추이

계절조정, 단위: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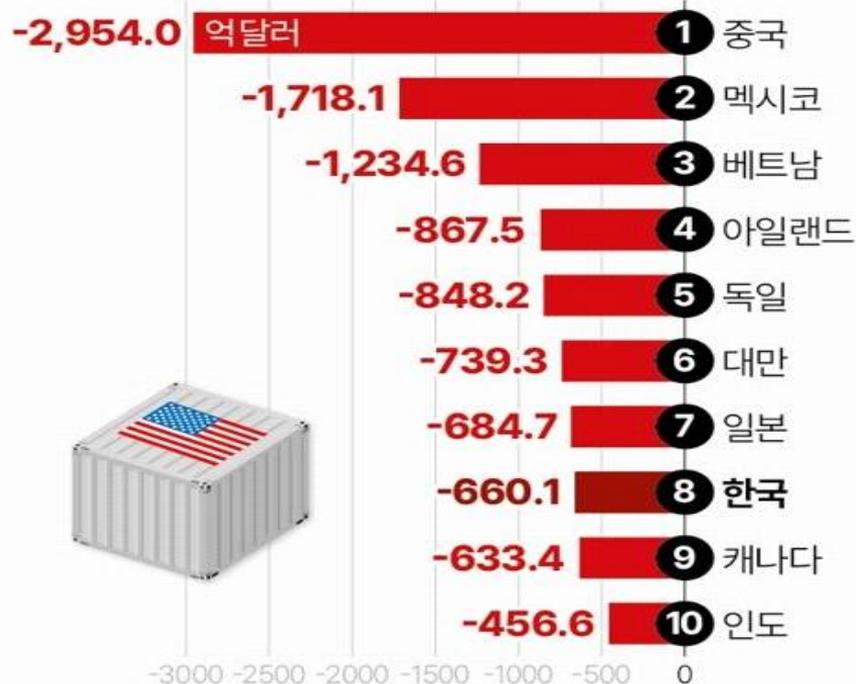


연합뉴스

자료: 미국상무부

미국 무역적자액 '톱 10' 국가

2024년, 상품 무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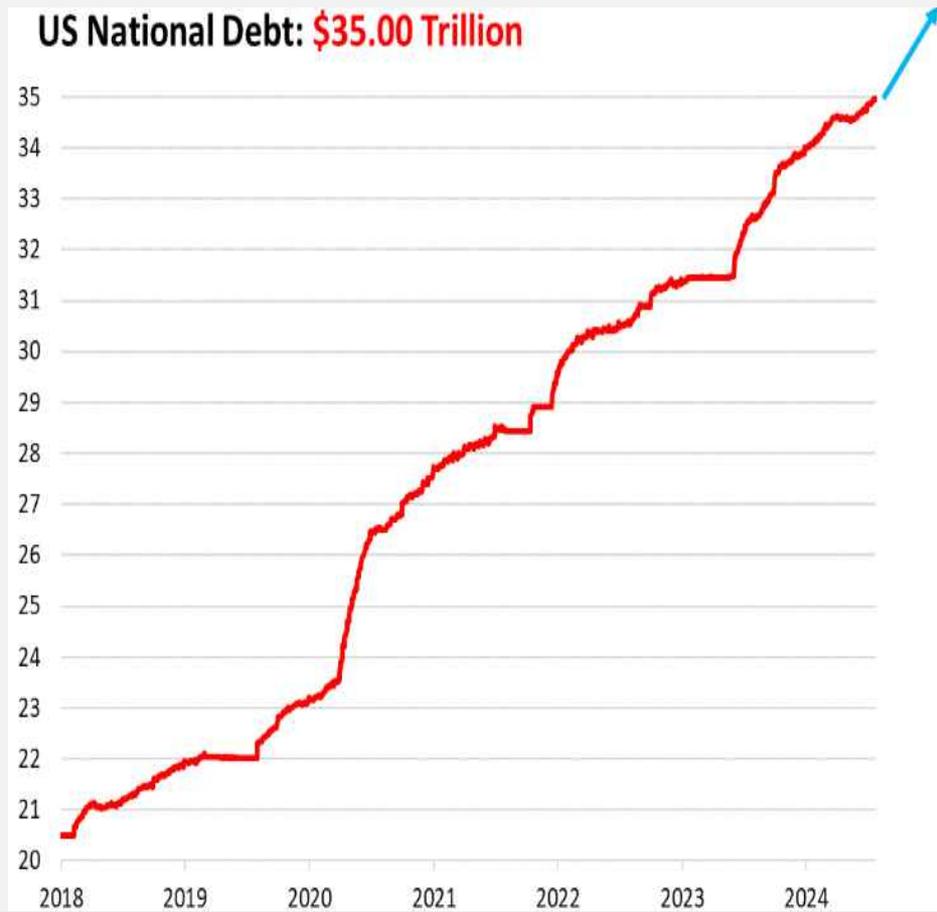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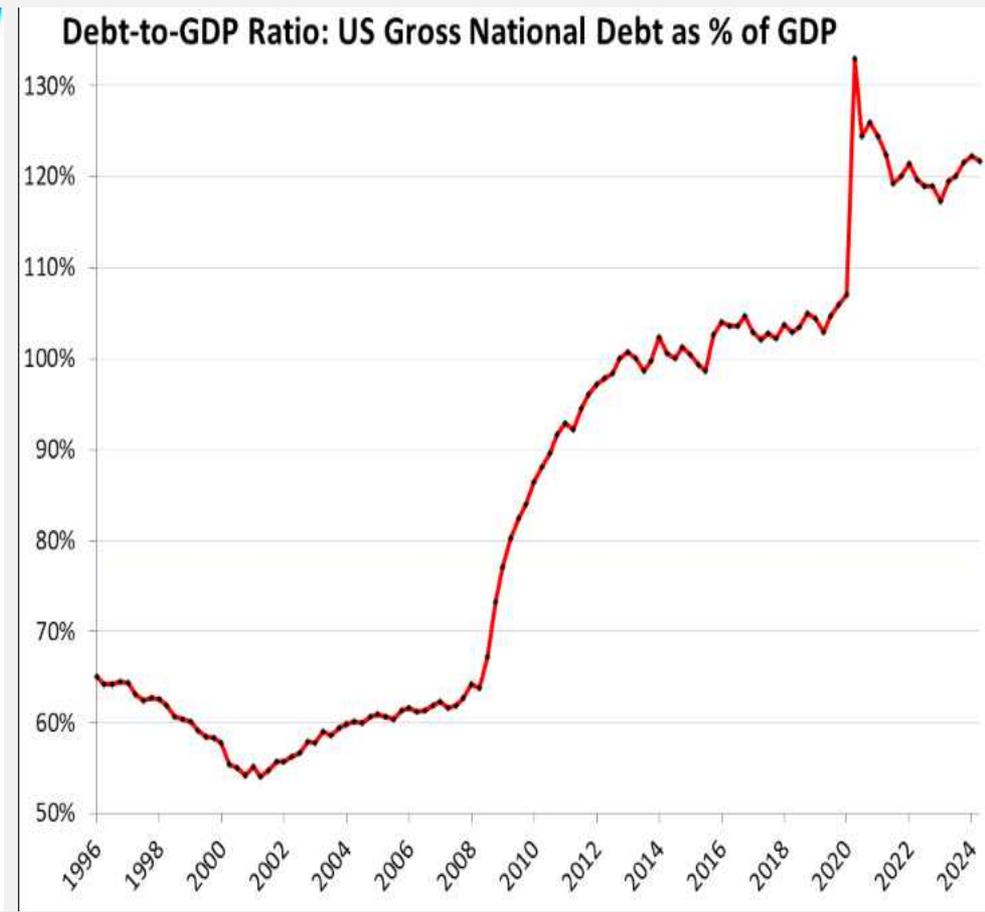
자료: 미국상무부

미국 국가부채 증가로 GDP 대비 120% 상회

US National Debt: **\$35.00 Tr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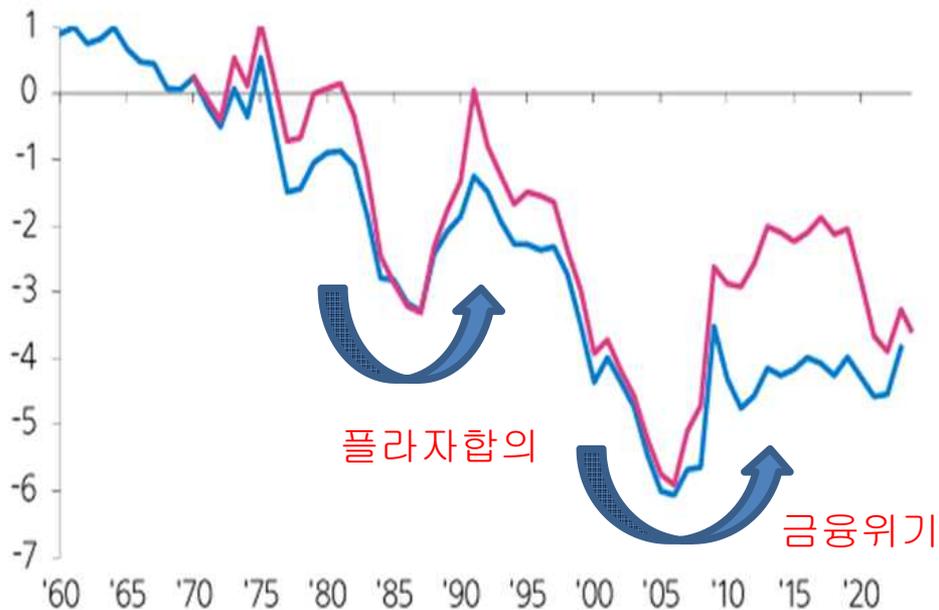
Debt-to-GDP Ratio: US Gross National Debt as % of GDP



미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축소가 시급한 상황

美 상품수지, 경상수지 추이

(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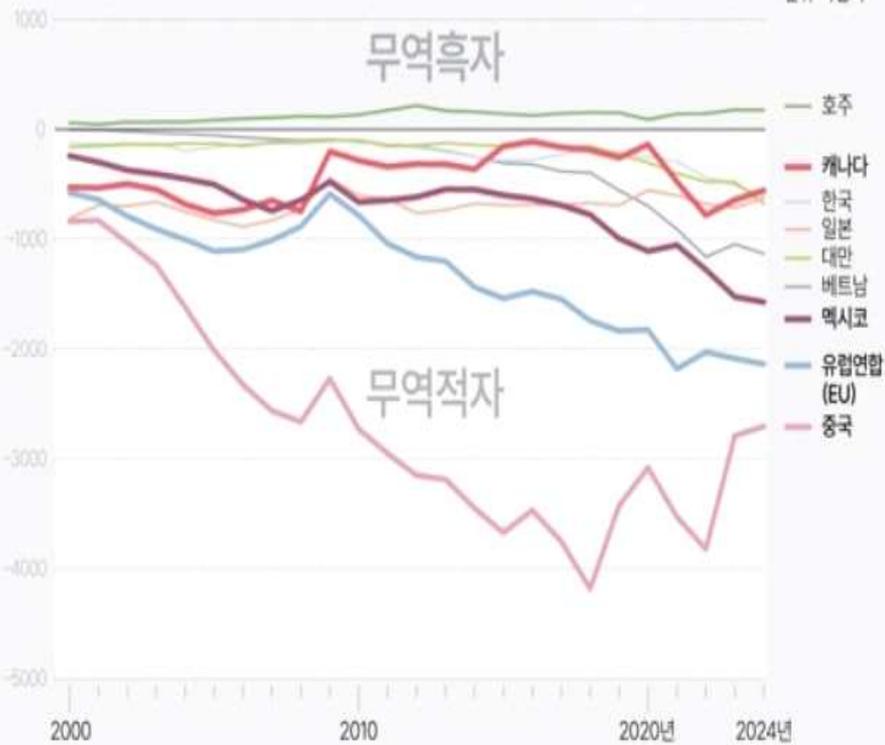


— 상품 무역 수지

— 경상수지 잔액

미국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AFP 연합뉴스

자료: 미국국제무역위원회

2024년 11월 현재

공극적인 해법은 인위적인 통화가치 조정

인위적 환율 조정 사례 비교

| 구분 | 스미스소니언 협정 (1971년) | 플라자 합의 (1985년) | 마라라고 합의 (2025년 ?) |
|--------|--|---|---|
| 축매(채찍) | · 관세 10% 인상 | · 의회 보호무역 법안 제출 | · 보편적 관세 10~20% |
| 논의 대상국 | · G10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 · G5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 · G7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 주요 대미 무역 상대국(멕시코, 한국, 대만 등) · 中 참여 여부 주목 |
| 법적 기반 | · 적성국교역법 (TWEA) | · 무역법 제301조 | · 무역법 제301조 · 국제경제비상권한법 (IEEPA) |
| 국제 정세 | · 냉전 (데탕트 모색기) · 양극 (미국 vs. 소련) | · 냉전 (공산권 분열기) · 양극 (미국 vs. 소련) | · 미-중 갈등 · 美 단극 약화, 다극모색 (BRICS 등) |
| 인센티브 | · 안보 | · 안보 | · 안보 · 달러 유동성 보완 (스왑) |
| 목표 | · Triffin Dilemma 완화 (달러 패권 유지) · 무역수지 균형 | · Triffin Dilemma 완화 (달러 패권 유지) · 무역수지 균형 · 각국 경제 구조 개선 | · Triffin Dilemma 완화 (달러 패권 유지) · 美 국가 부채 부담 축소 · 美 제조업 부흥 · 진영 재구축 |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

1) Best Scenario

- 4/9 상호관세 발표 전후로 각국이 미국에 유화책 제시
- 미국은 국가별 유화책에 따라 상호관세 비율 조절
- 1차 무역전쟁(2018~2020) 당시 S&P 500 지수는 2018년 4분기 20% 조정
- But, 2019년 1월 4일, 연준의 통화완화 스탠스 변화로 주가지수 급반등
-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로 무역전쟁 일단락

2) Worst Scenario

- 주요국의 보복관세 잇따르며 무역전쟁 장기화
- 스무트-홀리 관세법 발효 당시(1930년)에는 다우지수 80% 하락 경험

3) Normal Scenario

- 일부 국가는 보복관세 + 일부 국가는 유화책 제시하며 혼조
- 시간을 두고 결과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형태로 점차 영향력 축소

2018년 ~ 2019년 미국 주가 vs 미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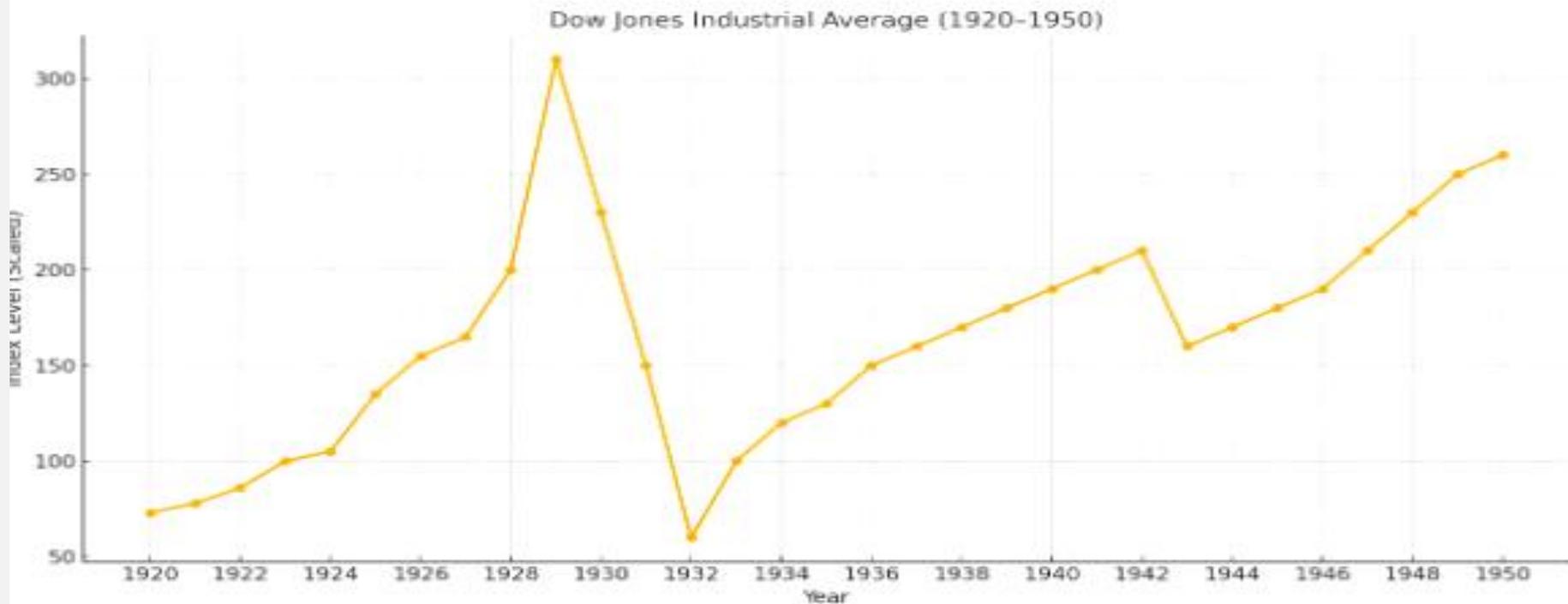


스무트-홀리 관세법 vs 2025년 트럼프 상호관세 비교

| 항목 | 스무트-홀리 관세법 (1930년 6월) |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2025년 3월~) |
|--------|-----------------------------------|---|
| 시행 시기 | 1930년 6월 | 보편관세는 4/5, 상호관세는 4/9 발효 |
| 주도자 | 상·하원 의원 (스무트, 홀리) + 후버 대통령 |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중심) |
| 목적 | 미국 농민 보호 (초기 농산물 중심 → 전체 품목 확대) | “동등한 관세” 적용을 통한 미국 산업 보호 + 무역재협상 압박 |
| 조치 내용 | 1,000개 품목에 평균 60% 이상 관세 부과 | 모든 교역국에 대해 보편관세 10% + 57개 국가에 상호관세 15% 이상의 추가 부과 |
| 대상 국가 | 전 세계 (특히 유럽,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 | 전 세계 (중국, EU, 한국, 일본 포함 동맹국까지 적용 대상) |
| 외국 반응 | 대규모 보복관세 확산 → 세계 무역 전쟁 | EU·중국 등 보복 예고 , 무역협정 위반 소송 검토 |
| 경제 영향 | 세계무역 -66%, 대공황 장기화 | 인플레이션 자극, 글로벌 공급망 불안,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 |
| 역사적 평판 | “역사상 가장 실패한 경제정책 중 하나” | 아직 평가 중 (→ 향후 스테그플레이션 유발 여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공황 당시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주가 80% 급락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1920-1950)



2025년 vs. 2024년 주요 자산별 성과 비교

